

독서, 그 보람찬 한유(閑遊)의 시간들

“세계는 한권의 아름다운 책에 도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말라르메

이광주

인제대 교수 · 서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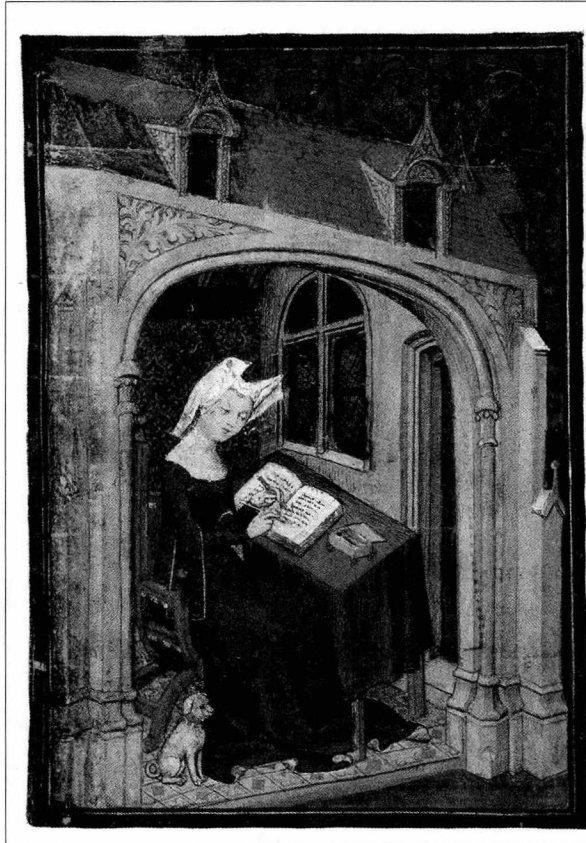
독서가 개인적 문화행위가 된 것은 12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였다. 개인의 자필 원고가 서적이 되고 서점에 갖가지 책이 진열되면서부터 사람들은 비로소 책과 '개인적' 교분을 맺게 되었다. 사람들은 제 나름의 기대와 욕망을 안고 서점으로 향했다.

책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책과 책읽기를, 그리고 책방을 찾아가기를 좋아한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없는 날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하듯이 나에게도 책은 없는 삶이란 상상도 할 수 없다. 8·15 광복이후 50여년, 학생으로서, 그리고 교수로서 대학교단에서 줄곧 보내다 보니, 언제나 서가를 가까이할 수 있었던 나날이었다. 내 삶의 크나큰 축복이요 호사였노라고 새삼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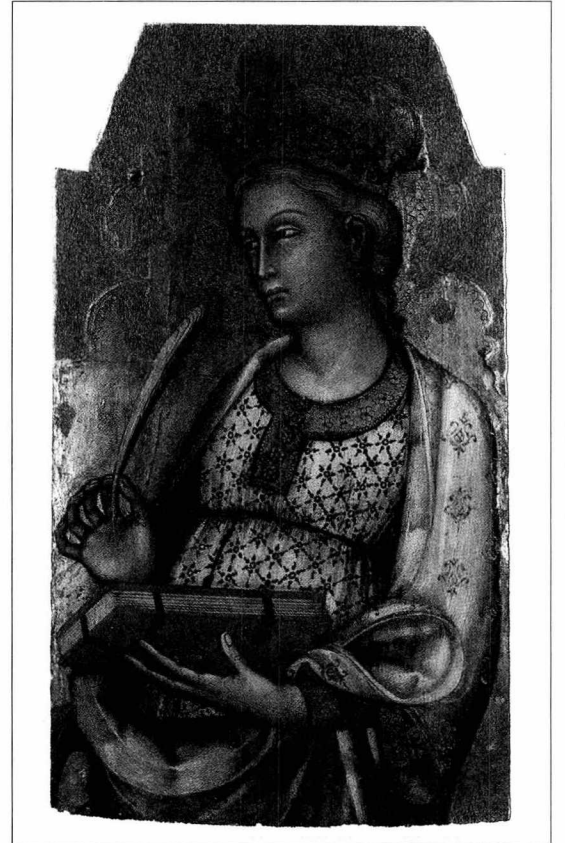
순수무구의 나날들

책과의 첫 만남은 유년시절, 만화와 그림 동화에서 시작하여 위인들의 전기, 세계의 풍물지들로 이어졌다. 정기구독한 잡지가 나오는 날은 가장 신나는 날이었다. 그림 두루마리처럼 그 책들이 펼쳐준 광경들은 할머니가 자장가처럼 들려준 호랑이나 귀신 이야기와는 또 다르게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유혹의 숲이었다. 책을 품에 끼고 잠 못이룬 그 감흥의 밤들, 현실에 눈을 뜨기에 앞서 책이 들려준 저편의 세계에 나 자신을 길들인 그 순수무구의 나날들.

책이란 필자와 출판인, 그리고 독자의 공동작품이다. 필자와 출판인의 모진 산고 끝의 기쁨을 충분히 헤아리지만, 서적의 포도밭이 베푸는 최대의 수혜자는 독자임이 틀림없다. 나는 서적이라는 포도주 앞에서는 포도 감정인이나 소말리아가 아닌 주객(酒客)이 되고 싶다. 주객이야말로 붉은 빛깔, 흰빛이 뿜어내는 방향에 흠뻑



15세기초의 여성 저술가(피자의 크리스틴 그림, 대영도서관 소장).



성서를 든 수녀-성 카타리나(파올로 그림, 1372~1410).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 카프카의 작품이나 호이징하의 《중세의 가을》을 단지 해설을 쓰기 위해 읽어야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는가.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범람하는 인쇄물들의 홍수와 인터넷 정보화시대 속에서, 한 권의 책이 진실로 소중하고 성스럽기까지 했던 옛날로 페이지를 넘겨 책과 책읽기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서적, 그 공동체의 전례(典禮)

카톨릭의 대성당은 하나의 서적이었다. 그 수많은 구조물들이 시사하듯 유럽 중세는 상징물로 가득찬 세계였다. 문자 또한 기호·상징·메타포로서 기록되고 읽혔다. 그리고 모든 상징물과 문자의 가운데에는 성서가 자리하였다.

그 무렵 ‘독서한다’ 함은 성서의 이야기들을 축납(祝納)하는 행위를 의미하였다. 성스러운 서적은 읽기에 앞서 전례(典禮)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졌다. 수도원에서 미사를 올릴 때 성서는 촛불에

이끌려 성반에 받쳐져 제단으로 모셔졌다. 그 작은 행진 동안, 걸음을 옮길 때마다 수도사들은 ‘우리들 주를 축복하리니’를 노래 불렀다. 성서는 향내나는 특별한 불에 의해 밝혀졌다. 그렇듯 성서는 성구(聖具)요, 예배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리스도는 말씀(로고스)이요, 한 권의 책을 계시하니, 문자는 대성당이나 순례길의 수많은 구조물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역사’를 상징하였다. 기록된 문자(텍스트)와 새겨진 도상(이미지), 그 혈연관계는 서유럽 문화의 전통이었으며, 진정한 ‘독서’란 문자의 행간에서 이미지를 찾아내고 그와 더불어 도상들을 텍스트로 재구성하는 작업이었다. 읽는 일과 보는 일은 원래 나누어지지 않았던 하나의 행위였던 것이다.

다시 주목할 점은 모든 상징물들이 그렇듯, 문자와 서적은 믿음을 함께하는 공동체 전체에 속하고, 그 의식과 정서 그리고 정통성의 표상이었다는 사실이다. 유럽에 있어 문자와 서적이 개인의 것이

되고 독서가 개인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은 12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였다. 그때서야 서적은 믿음이 같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화창(和唱)하는 악보와 같은 성격에서 벗어나 개인적 텍스트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것은 때마침 유럽의 교육과 학문이 수도원과 대성당으로부터 새로이 성립된 대학으로 옮겨지고, 수도사=교사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며 그에 대신하여 지식인의 시대가 도래했던 것과 시기를 같이한다.

《성서》와 《논어》가 그리스도나 공자의 언행을 중심으로 오랜 세월 속에서 많은 제자들에게 의해 기록되었듯이, 오늘날 우리들이 고전이라고 부르는 저술들은 어느 특정한 개인의 사색의 결과이거나 단독으로 씌어진 것이 아니었다. 유럽에 있어 ‘개인’이라는 말은 12세기에 발견된 것이며, 더욱이 서적의 세계는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이었다. 그만큼 당시에는 성스러운 책, 만인에 의해 구전되고 집대성된 고전만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책의 포도밭이
배우는 최대의
수혜자는 독자이다.
옛날에는 책이
진실로 소중하고
성스럽기까지 했다.

성 빅토르 후고(1096~1141)의 《학습론》
- 그 주제는 바로 '독서방법'이었다-은
바야흐로 독서가 개인적 문화행위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지난날의 순례로서의
독서에 바쳐진 만가(輓歌)이다.

순례의 길, 포도밭의 환각

스콜라 학자인 후고에게 독서란 영혼의
'치유'를 위한 것. 다시 말해서 치유자인
그리스도의 탐색을 위한 순례의 길이었다.
수도사들은 기도시간은 물론 소꿉을 짜고
버터를 만들 때에도 '시편'을 함께
낭송하였다. 수도사들이 있는 곳에서는
낭송-독서하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그들에게 있어 독서는 존재양식 그 자체를

의미하였다. 그런데 치유를 위해서도 각별히
'한가(閑暇)'가 요구되었다.

후고는 수도사와 관련하여 '한가'를
강조하였다. 중세의 수도사란 '고독 속에서
신을 위해서만 자기를 한가하게 하는 사람'
으로 정의되었다. '한가'란 '해방되고
자유롭게 됨'을 의미한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세례를 받은 뒤
'한가'를 체험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고
아프리카에 가서 작은 마을공동체를 세웠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지표를
'한가함으로써 신께 가까이'라는
것으로 삼았다. 후고는 완벽한 독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한가'에 자기를
바칠 것을, 모든 욕망과 단절하여 '한가'를

향수하기를 권하였다.

'서적의 모습으로 감추어진 신의 아들의
모습을 찾아내는' 독서는 후고에게 있어
또한 서적이란 포도밭의 순회이기도
하였다. '페이지'의 어원인 라틴어의
'파기나'란 포도나무의 늘어선 줄을
의미한다. '읽는다' 함은 원래
'거두어들인다'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마다 거두어들인다.

14세기말 이탈리아의 화가 파올로가 그린
시에나의 수녀 성 카타리나의 초상화는
그 얼굴 표정이나 자세, 그리고 그런대로
사치스러운 의상으로 하여 인문주의적
르네상스의 도래를 예고하는 인상을 풍긴다.
그러나 그녀가 품에 안은 듯이 떠받든

주홍색 포장의 큰 성서의 '무게'는,
육감적이기까지 한 그 눈동자가 향한 곳이
지상이 아니라 천국임을 짐작케 한다.

18세기 프랑스의 화가들은 독서하는
여인상을 즐겨 그렸다. 홀로 방에 들어앉아
책을 읽는 여인의 이미지가 당시의
화가들에게는 신성한 화재(畫材)였던
모양이다. 문예서적을 탐독하였다고 하는
그 신여성들은 카타리나와는 달랐다.
숙연하기까지 한 그 단정한 모습 속에
우리들은 가려진 그녀들의 바람과 욕망을
읽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자필 원고가 서적이 되고 서점에
갓가지 책이 진열되면서부터 사람들은
비로소 책과 '개인적' 관계를 맺게 되었다.
권태를 매우기 위해, 혹은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제 나름의 기대와 욕망을 안고
사람들은 서점으로 향한다. 쪽 늘어선
책들을 훑아 천차만별, 저마다의 심산을
지닌 독자로 무리를 이룬 큰 '책의 집'은
지(知)의 타작의 터전이기 앞서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공간일지 모른다.
나도 그 무리의 한사람이다.

그러나 서점으로 가는 길은 나에게
또한 산책길과도 같이 어떠한
속셈으로부터도 자유로운 한유(閑遊)의
노정이다. 나는 책과의 교분에 있어서는
예나 지금이나 낭만주의자다. 그리하여 책읽
기의 참된 맛과 충족감을 한가 속에서,
바꾸어 말하면 글쓴이와 교감하며 더불어
'놀이'를 즐기는 데서 찾는다.

롤랑 바르트는 어느 학회에서 자기는
화장실에서 자주 책을 보며 거기서 읽는
것이 제일 잘 몸에 새겨진다고 말하여
청중들을 놀라게 하였다. 문자의 투기장에서
설새없이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그에게
있어 그곳만이 유일하게 남겨진 한가의
공간이었던가.

며칠전 이반 일리치의 《텍스트의 포도밭
속에서》를 읽으며 오래간만에, 참으로
오래간만에 한유의 시간을 보냈다. 그때
나는 고딕 대성당에 인도되어 들어가는
환각에 잠시 빠졌다. 그 나의 환각은 후고와
일리치가 따라주는 포도주에 취한 탓만도
아니었다. ❖